



☞ B8면에서 계속

극적인 의미는 생명보호를 위해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계가 생명환경운동에 적극 나서고, 강을 뒤엎어 뭇생명을 죽여가는 4대강 사업을 중단시켜 4대강 살리기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목숨뿐만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서로 말과 생각이 부딪히는 경우도 같다. 우리는 대화하면서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묵살하곤 한다. 내가 내 생각만을 고집한다면 타인의 생각을 짓밟아 죽이는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다. 부처님이 왕사성 죽림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한 브라만이 찾아와서는 “왜 우리 신도를 빼앗아갔느냐”고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다. 한 브라만 출신의 젊은이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자 이에 대해 혐의하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만 지켰다. 그러자 그 브라만이 큰소리를 쳤다. “사문(출가자)이여, 그대는 쫓도다. 내가 이겼다.” 부처님은 브라만에게 말했다. “성내는 자에게 되받아 성내지 않는 자는 두 가지 승리를 얻는다.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알고 정념으로 자신을 진정시키는 자는 자신에게 이기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기는 것이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나도 명달아 화를 내는 사람은 승리자가 아니다. 패배자다. 상대에게 끌려다니 상대에게 진 것이고, 자기 분을 못 이기니 자기 자신에게도 진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패배에 속한다.”

■ 정당하게 정도껏 재산 모아와  
보시와 자선으로 실천하는 불투도 · 불탐욕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4)**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가 하나의 미덕이다. 사람들은 돈에 웃고 운다. 부자가 되면 정말 행복해 지는 것일까?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영국 언론들은 “경제학자들이 수학적 모델을 통해 ‘부자가 될수록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오랜 금언이 진실임을 증명했다”고 보도했다.  
커티스 이튼 켈거리대 교수 등은 최근 경제학 학술지 <이코노믹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국가가 일정 수준의 부를 축적한 다음부터 절은 부의 증진에서 얻어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박탈감만 커진다고 결론지었다. 돈을 벌수록 사람들은 부유층 유명인사를 따라 하려고 고급 의류나 보석, 값비싼 자동차 등 ‘신분 상징’의 소비에 집착하게 되는데 이런 사치품을 살 수 없는 다수의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돼 결국 국민 전체의 행복 총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사람들이 소비에 집착할수록 여가시간이 줄고 이타적인 행동도 감소해 사회 전체의 공동체 의식이 하락한다는 결과도 내놓았다.  
탐욕은 자신을 망각하게 하고 모든 관심을 대상으로 돌린다. 남의 것을 훔치게 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주지 않는 남의 것을 갖지 말라’는 불투도계는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이나, 필요 이상의 것을 모아두는 것에도 해당된다. 재화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써야 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는 이는 노력을 해서 얻어져야 한다는 말도 된다. 필요에 의해 쓰여 지는 것은 봉사를 뜻한다. 필요한 곳에 써야겠다고 마음을 내고 실천하는 것이 보시이다.  
조계종의 아름다운동행, 천태종의 나누며하나되기, 태고종의 나누우리 등이 이웃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보시가 부처님 지혜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이 주목 받고 있다. ‘연우와함께’가 그 예이다. 사회적 기업은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위해 빵을 만드는 기업이다.  
지금껏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이루고 갖기 위해 재산을 모아왔는가, 재산을 모으는 수단 · 방법보다는 얼마나 모았는지에 집착해 왔는가. 내가 아닌 모두를 위해 노력 · 봉사 · 보시하자.

■ 사람과 사람끼리 배려와 존중을  
청정한 생활로 실천하는 불사음

조두순 사건(일명 나영이 사건)은 2008년 12월에 안산의 한 교회 안 화장실에서 50대의 조두순이 8세 여아(나영이)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나영이는 생식기가 80% 훼손됐고, 대장과 항문이 영구 소실됐다. 나영이와 그 부모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표현하기도 어렵다.  
해마다 성폭력 · 성폭행 사건이 줄지 않자 정부는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신원공개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사건들은 왜 일까?  
삿된 음행이 범죄로 이어지는 성폭행 · 성매매 등의 원인은 인간이 쾌락을 탐닉하는 후유증이기보다는 인간과 성의 도구화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흔히 여성의 짧은 치마 등 과도한 노출이 남자로 하여금 성범죄를 저지르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름철보다 겨울철 성폭력 발생률이 높다는 통계가 발표된 적도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사례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등 성범죄의 70% 이상은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된 범죄였다. 또, 가해자의 성범죄 범행 동기는 자신에 대한 분노, 소외감의 표출인 경우가 많았다. 때로는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거나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전체 성폭력의 30%를 넘는다. 그 건수만 봐도 2005년 738건에서 2009년 101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단순히 성관련 문제가 개인적 쾌락 · 육구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의 일면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결국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을 도구로 돈벌이를 하는 성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뭇 생명을 살리자는 불살생계의 대승적 실천의 한 방법이다. 사진은 4월 17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4대강 수목대제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안거 하거라. 안거 중에는 입을 무겁게 가져 부디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한 곳에 모아 경전과 계율을 열심히 배워라.”  
부처님이 아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한 것도 입조심이었다.  
불망어는 거짓말을 않는 것이다. 거짓말은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

스님들은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중생은 모두 본래 부처인데 무명으로 인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 어리석음은 탐욕과 진심 이전의 번뇌의 근본이며, 삿된 견해[邪見]은 악업의 근본이 된다.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누구나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드러 내보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말했다.  
“이 세상에 세 가지 그릇된 견해를 가진 의도가 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밝게 가려내어 추종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러한 견해를 따른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세 가지 그릇된 견해란 어떤 것인가. 첫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사람이 이 세상에 경험하는 것은 괴롭든 즐겁든 모두 전생의 업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둘째,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은 자재천(自在天)의 뜻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셋째, ‘인(因)도 없고 연(緣)도 없다’라고 말한다.”

모든 것이 전생의 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모든 것이 자재천의 뜻에 의한 것, 인도 없고 연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은 “이 일을 해서는 안된다거나, 해야겠다는 의지도 노력도 소용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가 그릇된 견해를 눈 밝게 알아차리고 무명을 걷어내려면 수행이 필요하다. 그것은 신수의 계승처럼 번뇌를 쓸고 닦아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혜능의 계승처럼 본래 한물건도 없는 것일 수도 있으나 중생이 부처가 되려면 마음공부를 해야 하는 것만은 변함이 없다.

백장 선사는 <백장록>에서 수행자의 올바른 자세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괴로움과 즐거움, 마음에 맞고 안 맞는 갖가지 일이 닦쳐오더라도 물러서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명리나 의식을 염두에 둔다거나 공덕과 이익을 탐내서는 안 된다. 세간 어느 법에도 걸림 없으며 가까이 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괴로움과 즐거움을 똑같이 여기며, 거친 옷으로 추위를 막고 맛있는 음식으로 연명해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나 귀머거리 · 병어리 같이 해야 약간이라도 비슷해질 여지가 있을 것이다.”

십선은 중생이 부처되는 첫걸음이다.  
한 스님이 운문 선사에게 도침, 길을 물었다.  
선사가 답했다. “가라(去)!” **조동섭 기자**

사람을 부처로 배려하고 존중하자  
십선은 중생에 이익주는 자비행

매매도 같은 경우이다. 다른 관점에서는 인간을 노동 · 전쟁의 도구로 보는 것도 배려와 존중이 결여된 까닭이다.  
한 젊은 비구가 색욕이 그치지 않음을 걱정하여 칼날로써 그 음을 끊으려 할 때에 부처님은 “그 음을 끊음이 그 마음을 끊음만 같지 못하다. 욕심은 네 뜻에서 나오고 뜻은 생각에서 난다. 뜻과 생각을 끊으면 색과 행에 안 끌리리라”고 설했다.  
사람을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부처로 배려하고 존중하자.

■ 바른 언어 습관이 성공 부른다  
진실되고 화합되는 말... 불망어 · 불기어 · 불악구 · 불양설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은 감로의 길이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방종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삼가는 사람은 오래도록 살 것이요, 방종에 빠진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느니라.” <중일야합경> 中  
봉은사 사건의 발단은 ‘말’이었다.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강남 부자 절의 스님이 좌파” 운운하는 발언을 했다. 이 ‘말’은 대화의 당사자였던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에게 들어갔고, 스님은 “봉은사 직영전환에 외압이 있었다”며 ‘말’을 퍼뜨렸다. 안 의원은 명진 스님을 만난 적도 없다는 등 거짓 ‘말’을 했고...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을 만들어 냈다. 결국 안상수 의원은 “그런 발언을 하긴 했지만 농담이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말’이 문제다.  
<법구비유경(法句譬喻經)>에는 부처님과 아들 라훌라의 이야기가 나온다.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말하기를 “저 현재라는 절에 가서

은 진실을 속이는 일이다. 거짓말을 하면 정보가 왜곡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의식을 형성시킨다. 작게는 인간관계가 잘못되지만 크게는 역사가 왜곡된다.

불기어는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아첨은 권력과 연관이 있다. 아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썩은 고기에 빌붙어서 두 손을 비비며 떨어진 부스러기를 조금씩 훔쳐 먹는 파리와 같다.

불악구는 험한 말(욕)을 하지 않는 것이다. 험한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이 흉폭해지고 생각이 거칠어진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크게 상처를 받는다. 작은 살생을 저지르는 셈이다. 험한 말로 절제되지 못한 채 표출된 화는 순식간에 자신을 사로잡는다. 더욱이 이동통신 등의 발달로 얼굴보기보다 말로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요즘, 예의 바르고 올바른 말은 그 사람의 얼굴이며 가장 중요한 매너이다.

불양설은 두 말로 이간질하지 않는 것이다. 서로 싸워야 자신에게 이득이 되거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양쪽에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경우이다. 말 한마디를 옮기더라도 진실 · 화합에 부합된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올바른 말 습관은 신의를 지키고 쌓아가는 것이다.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 부처님 법 만났으니 정진하자  
바른 안목으로 수행 · 정진하는... 불사건 · 불치심

부처님은 인생에서 지극히 만나기 어려운 인연 가운데 하나로 사람 몸 받기의 어려움을 맹구우목(盲龜遇木)에 비유했다. 그래서 옛